



Market Index / 24일

코스피지수 ▲ 5553.92 +148.17

코스닥지수 ▲ 1121.44 +24.55

유가(WTI, 달러) ▼ 88.13 -10.10

환율(원) 1USD 1518.00 100¥ 957.04

살때 팔때 1465.80 924.12

1EUR 1763.82 227.34

살때 팔때 1695.00 205.70

# 강정항 준모항 중단에 크루즈 손님도 급감

### 중·일 관계 악화로 준모항 운항 재개 시점 불투명 2월까지 제주 크루즈 관광객도 1년 전보다 26% ↓ 상하이 관광 후 항공기로 입국하는 상품 반응 미미

기대를 모았던 서귀포시 강정항의 준모항 운영이 지난해 12월 중단된 데다 올들어 국제크루즈로 제주를 찾는 방문객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모항 상품을 판매했던 여행사는 대체 상품을 선보이며 모객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첫선을 보인 강정항 준모항 상품은 일부 승객이 강정항에서 승선해 일본-중국을 거쳐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와 하선하는 상품이다.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에서 벗어나 승객들이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여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였다.

중국 국영선사가 운영하는 13만 5000t급의 아도라 매직시티호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준모항인 강정항에서 회당 50명의 승객을 태워 일본-상하이를 거쳐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오는 준모항 상품을 선보였는데, 지난해 1033명이 이용했다. 또 코스타 세레나호(982명)와 MSC(146명)를 포함한 3개 선사의 준모항 상품을 이용한 승객은 총 2161명이다. 제주도민이 710명, 외국인 221명을 포함한 도외인이 1451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며 양국 간 관계가 냉각된 후 12월부터 준모항 상품 운영은 중단됐다. 대신 여행사에선 준모항이 재개될 때까지 대체상품으로 강정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에서 하선해 1박 일정의 체류관광 후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상품을 선보여 모객 중이다. 하지만 일본이 경우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준모항 크루즈 상품을 판매해 온 여행사 에이티유에 관계자는 "지난

해는 제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준모항 상품을 홍보하는 기간으로, 올해부터 수요 확대를 기대했는데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바람에 상품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준모항 상품 중단과 동시에 크루즈가 일본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제주 방문 크루즈관광객도 급감했다. 올해 2월까지 제주에는 크루즈가 26회 기항하며 5만4625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회에 걸쳐 7만3398명이 방문한 데 견주면 25.6% 줄어든 수치다. 앞서 2025년 제주에는 321회의 크루즈가 입항하며 75만6031명이 방문했다. 방문객이 전년보다 17.5%(11만1884명) 증가하고, 2023년(10만109명)에 견주어서는 7배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때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제주도는 올해 초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5만명 정도 많은 8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중·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크루즈 관광객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의 80% 이상이 중국 출발이어서다.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일본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제주로 크루즈 관광객 80만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해 6월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코스타 세레나호.

제주도 제공

## 5월부터 제주항공 제주~인천 노선 뜬다 화·토 주 2회 운항키로... 중단 10년 만 재개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10년 만에 다시 운항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 운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노선은 2016년 운항이 중단된 노선이다.

제주항공은 이 노선에 5월 12일부터 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5월에는 화·토요일, 6월부터는 월·금요일에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 B737-800 또는 B737-8 여객기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 시설,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

사업계획(운항스케줄) 인가 등을 거쳐 운항을 개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 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제주' 노선 재개 등을 발표할 바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인천-제주 노선 개설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사이의 국내선 항공 네트워크 확장 등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코스피, 美·이란 대면 가능성에 2.7% 상승

### 개인·기관 '사자'에 5500선 사수... 외국인은 순매도

24일 코스피는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만회하며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2.74%) 오른 5553.92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세가 둔화더니 오전 한 때 하락 전환하면서 5400선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500선을 사수하면서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7230억원, 967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9860억원 순매도하며 4거래일째 순매도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인 코스피 200 선을 시장에서는 6960억원 매수 우위였다.

코스피는 이란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낙관론을 되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향에 상승 출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이란과의 대화가 이번 주 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의 공격으로 송전선이 손상돼 많은 지역에서 부분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전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개전 후 전쟁 종식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우상향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22.1원 내린 1495.2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1.83%)와 SK하이닉스(5.68%)가 상승했고, 이에 원익IPS(15.92%)와 주성엔지니어링(8.25%) 등 코스닥 시장 내 장비주의 주가도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4.55포인트(2.24%) 오른 1121.44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지속가능 관광' 실천 참여자 모집

### 관광공사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공모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4월 22일 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실천프로젝트 지원사업인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24

일 밝혔다.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는 지역 구성원이 직접 보전·공존·존중의 약속을 실천·확산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제주가 지닌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

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하는 여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제주를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체와 마을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보전의 약속(자연 및 환경 보전, 친환경 실천, 제로웨이스트 여행 확산) ▷공존의 약속(지역 상생, 로컬브랜드 연계, 사회적 가치 창출) ▷존중의 약속

(제주 해녀, 돌담, 제주어 등 문화 콘텐츠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도와 공사는 총 20팀을 선발하고, 팀별 최대 8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향후 평가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 서귀포시정소식

**제6회 제주 4·3 문예 백일장 개최 알림**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10.(금)
- 참여자대상 : 서귀포시 거주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
- 주제 : 4·3을 잊지 않는 마음, 미래세대의 약속
- 응시분야 : 문예부문(시, 산문), 미술부문(그림)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문예 부문	미술 부문
온라인 접수 주소	URL : <a href="https://naver.me/FRod7mWS">https://naver.me/FRod7mWS</a>	
이메일 접수 주소	dbswo0104@korea.kr	
방문/우편 접수 주소	서귀포시청 3층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층 교수학습지원과 (서귀포시 토평로 43)
문의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064-760-39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064-730-8191

**2026년 서귀포시민 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6.(월)
- 운영대상 : 서귀포 관내 거주 성인(만 18세 이상)
- 운영기간 : 2026. 4. 20. ~ 10. 16. 주 1회, 2시간 교육
- ※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분야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타악기, 성악 앙상블(합창)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064-760-2486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6. 3. 18. ~ 4. 6.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당 가격
- 열람 및 의견 접수처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처리 :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064-760-2142 ~ 2146

## 그랜드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라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규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메이플로 | 서라라 사거리 | 그랜드보청기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 기술인력 개발 |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